

# 시민 누구나 돌봄 필요시 전화주세요

### 광주시,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돌봄콜' 운영 중위소득 85% 이하 전액 지원...복지사각지대 해소

광주시가 올 1월부터 통합돌봄이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돌봄콜' (1660-2642·예정)을 개설한다.

광주시가 오는 4월부터 그동안 지속되던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광주다움 돌봄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서비스 접수를 위한 창구를 단일화 한 것이다.

늦어도 3월 안에 광주시 돌봄콜 뿐만 아니라 5개 자치구 돌봄콜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계획이다. 돌봄콜 번호는 결에서 돌봐주는 따뜻한 이웃을 의미해 '이웃사이' (2642)로 정했다.

돌봄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휴일 및 야간에는 ARS를 통해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토록 안내하고 민원인이 예약하면 다시 전화를 주는 'Call back'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돌봄 틈새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원혜택이 끊기는 문제, 필요한 서비스마다 시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복잡한 신청절차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올 4월부터 마련한 통합돌봄 정책은 소득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광주시민 누구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내용이다.

중위소득 85% 이하의 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고, 85% 초과자는 본인부담금이 산정된다. 이 외에도 가사, 식사, 동행,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가 신설됐고 이용시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취사, 청소, 세탁 등의 가사활동과 식사와, 세면,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가사지원, 병원이나 관공서에 함께 동행하는 동행지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고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건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전문 영양사가 설계한 영양음식을 조리·배달하는 식사지원, 집 내부의 간단한 수리, 대청소, 방역·방충 등의 주거편의 등을 지원받는다.

광주시 관계자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돌봄을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민행희 기자 hyunki@kwangju.co.kr



어르신들에 전달할 '찾아가는 행복밥상' 광주시 남구 봉선동 인애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난 19일 열린 '찾아가는 행복밥상'에 참가한 봉선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과 인애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들이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반찬을 만들고 있다. <광주시 남구 제공>

광주시는 지난 2020년 10월 기준 광주시 전체 인구(143만여명)의 48% (69만6700여명)를 돌봄이 필요한 인구로 보고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노인(만 65세 이상)이 22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아동·청소년이 18만8000여명, 1인가구(청년·장년)가 16만3000여명, 장애인 6만9000여명, 만 5세 이하 영유아 5만4000여명 순이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42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산구(40만여명), 서구(28만여명), 남구(21만여명), 동구(10만여명) 순이다.

광주시는 인구구조와 가족패러다임 변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돌봄이 더 이상 가족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올 4월 광주다움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 생애주기 통합돌봄 서비스망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것이다.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사례관리 담당자가 일대일 맞춤 돌봄계획을 수립해 민간·공공 제공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돌봄서비스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확충에도 여전히 기존 제도로는 서비스 자원이 부족해 복

# 광주지역 하천 건강상태 '나쁨'

### 국립환경과학원, 전국 5대 강 '수생태 건강성 지도' 공개

광주지역 하천 절반 이상의 건강성 지표가 '나쁨'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6년간(2016년~2021년) 전국 주요 하천의 서식 생물과 수변환경 현황 및 건강성 평가자료를 토대로 만든 수생태 건강성 지도를 20일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사진)에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광주 지역 영산강 상류, 영산강 중류(죽산보), 황룡강, 지석천 등에 있는 13개 하천에서 수질오염 지표로 사용되는 부착물말류를 조사한 결과 50%가 넘는 7개 하천의 건강성 등급이 D(나쁨)와 E(매우 나쁨) 수준이었다.

이번 평가는 4개의 생물지표(부착물말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어류, 수변식생)와 서식 및 수변환경 등 총 5개 분야를 조사하며 A(매우 좋음)부터 E(매우 나쁨)까지 5등급을 매겼다.

이번에 공개된 수생태 건강성 지도에는 전국 5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총 115개 중권역에 있는 전국 하천 3035개 지점의 건



강성 평가자료가 담겨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수생태 건강성 지도가 우리가 매일 접하는 하천의 건강상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 하천의 수생태 건강성 현황 정보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전남지역 화학물질 제조·수입량 가장 많아

### 전남·울산·충남, 전체 73% 차지

전남 지역이 화학물질 제조·수입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4차(2020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화학물질 취급업체 3만 7107개 사업장에서 3만 1600종의 화학물질 6억 8680만톤이 유통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제3차 조사 결과보다 취급업체 수는 약 20%, 화학물질 종류는 7%, 유통량은 8%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는 제조·수입량 증가와 통계조사 대상 확대가 증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도 석유 정제 및 화학업종이 있는 전남(29.6%), 울산(24.4%), 충남(18.8%) 등 상위 3개 지역의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이 전체의 약 73%인 5억 9089만톤을 차지했다.

산단별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은 여수 산단이 1억 5800만톤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해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고, 울산·미포 산단(13.7%), 온산 산단(10.4%), 광양 산단(9.1%), 대산 산단(8.6%) 순이었다.

유해화학물질(1413종) 제조·수입량도 전체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약 10%인 7936만톤으로 2018년 대비 약 3% 증가했다.

이번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ici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2018년 대비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유통량이 증가한 만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의 유통 및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영산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저감 위해 국비 733억 지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비 733억 원을 지원한다.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관할 지역내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광주시 182억 원, 전남도 411억 원, 제주 78억 원, 경남도(남해·하동군) 62억 원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 국고보조사업은 운행차배출가스·사업장·생활주변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이뤄진다.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분야에는 노후 경유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관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화물차 LPG신차 구매 등에 국비 498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집진시설 등 방

지시설 교체·설치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등에 111억 원을 지원한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에서는 친환경보일러 교체·지원사업, 가스 냉난방기기 저감장치 부착하는 가스열펌프 개조지원사업 등에 27억 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저감 국고보조사업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진행돼,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선호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제철관리제 등 미세먼지 취약시기를 대비해 국고지원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지자체에서도 지방비 확보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복지서비스, 동신대사회복지관·양지사회복지관서 신청

### 노인일자리 등 사회보장급여 7종, 복지관·의료기관서 신청 가능

오는 30일부터 광주시 남구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과 양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시 남구 동신대학교종합

사회복지관과 양지종합사회복지관 등 2곳이 전국 34곳 시범사업 기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의료기관 등 민관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뀐 것이다.

지난 19일부터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서비스가 시작됐으며, 30일부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항목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면하는 복지관과 의료기관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신청까지 연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행희 기자 hyunk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